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
「이시가와의 골무」
글·그림 김민재
바느질할때 없어서는 안되는 골무.
철공장이였던 발명가는 이 발명품으로
골무

이 일을 계기로 이시가와는 손가락을 아프게 하지 않는 골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.
아내가 부업을 그만둘수는 없어! 그렇다면...
그러던 어느날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시가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가죽조각을 발견했다.
에구~ 저 아까운 걸~
순간 이시가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골무를 만들때 쇠대신 부드럽고 질긴 가죽을 사용하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선 것이었다.
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지
드디어 이시가와는 자신이 가죽골무를 제작한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.
이시가와는 가죽골무의 실용신안출원을 마치고, 고무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. 가죽골무의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.
내 인생 '가죽골무'에 올인이다!!
그의 결정은 대 성공이었다!! 주문량은 날로 늘어갔다.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50여가지의 새로운 골무도 개발했다.. 그는 '골무의 제왕'이 된것이었다...
이 골무를 끼는자...
골무~ 골무~